



LRQA Korea 특집호

싱가포르 'WSH 2028'

고용노동부 장관이 꺼낸 '싱가포르 안전모델'

안전을 넘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목차

선진국의 성공사례로 분석한 대한민국 산업안전의 미래	01	▶
싱가포르 WSH 2028	02	▶
또 다른 선진 사례 : 영국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	05	▶
대한민국, 무엇을 강화해야 하는가?	07	▶



‘선진국의 성공 사례’로 분석한 대한민국 산업안전의 미래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
생산, 품질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을 이끄시는 경영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규제 강화와 처벌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이 목표를 위해,
우리는 **성공적인 해외 모델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사례가 바로
싱가포르의 'WSH(Workplace Safety and Health) 2028' 전략입니다.

싱가פור는 불과 14년 만에
근로자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75%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성과입니다.
이러한 성공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철학 아래 설계된 치밀한 국가 전략의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WSH 2028 전략’의 핵심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싱가포르 WSH 2028

건강한 인력이 안전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나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국가

싱가포르 '책임의 생태계' 성공 모델

싱가포르는 인구 10만 명당 사망사고율 0.99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경영진·기업·근로자가 각각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책임의 생태계'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교훈

싱가포르는 안전을 시장 논리 속에 통합하고, 건강까지 포괄하는 안전 개념, 현장·기술 중심 혁신을 동시에 구현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안전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모델은 안전을 규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WSH 2028 in a nutshell

VISION
A Healthy Workforce in Safe Workplaces. A Country Renowned for Best Practices in Workplace Safety & Health.

STRATEGIC OUTCOMES

- SUSTAINED REDUCTION IN WORKPLACE INJURY RATES
- MINIMIZE HAZARDS THAT LEAD TO OCCUPATIONAL DISEASE
- PROMOTION OF GOOD WORKFORCE HEALTH
- PERVASIVE ADOPTION OF THE VISION ZERO CULTURE

STRATEGIES

- Strengthen WSH Ownership
- Enhance Focus on Workplace Health
- Promote Technology-Enabled WSH

KEY RECOMMENDATIONS

1. Make WSH more salient in business decisions.
2. Align company directors and top management to WSH ownership.
3. Strengthen WSH ownership of workers.
4. Expand occupational disease prevention efforts.
5. Build companies' capabilities to promote workforce health.
6. Develop a WSH technology ecosystem to deepen industry capability.
7. Strengthen WSH training through technology.

About WSH 2028
A Healthy Workforce in Safe Workplaces. A Country Renowned for Best Practices in Workplace Safety & Health.

Singapore's WSH ranking among OECD* countries

Singapore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our WSH outcomes.

Our workplace fatal injury rate declined by more than 75% over the past 14 years from 4.8 per 100,000 workers in 2004 to 1.2 per 100,000 workers in 2018 - the lowest level recorded in history.

Strategies

Strengthen WSH Ownership
Ownership for WSH has to move beyond "safety" to the global leading for sustained WSH outcomes. Our aspiration for 2028 is that every company in our economy is enabled to care for their workers' safety and health, and there is shared trust and accountability by all stakeholders.

Enhance Focus on Workplace Health
A healthy workforce is the backbone of a safe workplace. Promoting a healthy workforce can also contribute to safety. This encompasses both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disease and the promotion of workforce health.

Promote Technology-Enabled WSH
By the year 2028, Singapore will have made much progress towards its goal of becoming a Nation. The promise of WSH will be fully realized through technology.

Engagement with our stakeholders

Recommendations

Make WSH More Salient in Business Decisions
Prioritize every company's WSH performance in terms of workplace safety and major injury rates, normalized by workforce size and industry to facilitate meaningful comparison.
• Drive work safety cooperation (sharing data with insurance industry) to that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government-mediated training requirements and/or other means to help them partner.
• Engage company directors and top management to WSH Ownership.
• Promote an Approved Code of Practice on WSH Status of principals to their contractors.

Provide incentives for supply chain leaders (such as major contractors and suppliers) to meet to improve WSH capability of suppliers.
• Allow leading enterprises to apply their in-house WSH training in building government-mediated training requirements and/or other means to help them partner.

Strengthen WSH Ownership of Workers
• System to report and learn from near-misses.
• System to empower workers to stop work in unsafe conditions.
• Joint worker-management teams to conduct regular WSH inspections and implement control measures.
• Build a WSH WSH expertise in every union.
• Mobilize WSH Worker's Centre to educate foreign workers on progressive WSH practices.

Expand Occupational Disease Prevention Efforts
• Encourage adoption of upstream measures to prevent ODS.
• Expand the ODS Act's list of reportable ODS.
• Raise awareness of medical surveillance to detect and prevent ODS.
• Increase health surveillance to ensure workplace health.

Build Companies' Capabilities to Promote Workforce Health
• Promot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HS) professionals to workplace health.
• Raise awareness of measures to promote workers' mental health.

Develop a WSH Technology Ecosystem to Deepen Industry Capability
• Encourage technology adoption to identify emerging technologies with WSH potential.
• Set up a WSH innovation and incubation centre to support WSH startups.
• Encourage research institutions, health technology companies and WSH technology startups to explore WSH technology solutions to address WSH problems.
• Encourage WSH technology startups to explore WSH technology solutions to address WSH problems.

Provide rapid follow-up support for licensed solutions from the WSH Technology Challenge to support WSH industry adoption.
• Encourage companies to adopt WSH technology solutions to address WSH problems and manage WSH risks.

Strengthen WSH Training through Technology
• Incorporate technology into WSH training plans to enhance on-the-job learning.
• Deploy technology for team learning on work-related tasks to improve safety.
• Engage use of meta-learning applications on hand-held devices for workers' ongoing upgrading of knowledge.

To encourage incident reporting by workers, the reporting process has to be easy and must be acted upon.
• Worker leader
• Management contracts should require good safety records on all contractors. Only when we do this, the smaller operators who are hard to monitor can follow.

WHS has had to evolve. There needs to be support of resources, materials and capability. It is important that we have the equipment to do the WSH, have a goal to invest in WSH.
• SME Chief Executive

We need to look to the future and use technology applications for WSH.
• WSH Officer

성공요인 1. 안전을 '비즈니스 언어'로 전환

안전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시키고, 이익과 직결되도록 설계했습니다.

• 경영진 책임 명문화

실행규범(Code of Practice) 을 통해 CEO와 이사회가 안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 (실행규범은 법규의 포괄적인 원칙을 실제로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실행규범을 따르면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전 관리 전문가가 없는 기업도 이 지침을 참고하여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고 시 '경영진 의무 이행' 여부가 법정에서 판단 근거가 됨

• 경제적 동력 강화

bizSAFE 등급 없이는 주요 계약 입찰 불가, 안전 기록을 보험업계와 공유 (bizSAFE는 싱가포르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인증 제도로, 기업의 안전 관리 시스템 수준을 5단계로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입니다. 이 등급은 기업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 우수 기업은 보험료 할인, 불량 기업은 할증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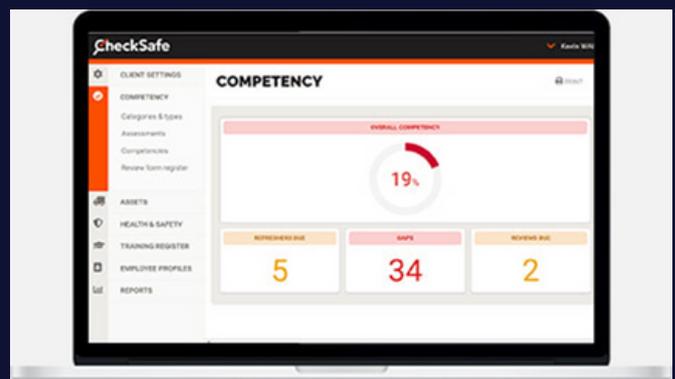
• 투명한 성과 공개

'CheckSafe' 포털에서 사망재해 기록·작업 중지 이력 공개

(CheckSafe는 싱가포르 고용노동부(MOM)가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입니다. 이 포털은 기업들의 산업재해 발생 기록, 작업 중지 명령 이력 등을 일반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안전이 곧 브랜드 가치와 평판 자산이 되도록 유도

bizSAFE



이미지 출처 : checksafe 홈페이지

성공요인 2. '안전'에서 '건강'까지 범위 확장

WSH 2028 계획을 통해 안전을 근로자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까지 확장했습니다.

- **만성질환 관리**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 건강 상태 반영, 건강검진 참여 확대
- **정신건강 증진**
직무 스트레스 관리, 인식 개선, 심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안전한 작업의 전제조건으로 명확히 함

성공요인 3. 현장 중심 문화와 기술 혁신

현장이 안전의 출발점이라는 원칙 아래, 근로자 권한 강화와 기술 기반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 **근로자 권한 보장**
작업 중단 권한을 법으로 명문화, 보복 걱정 없는 위험 보고 문화 확산
- **기술 생태계 구축**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 작업장 안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술로드맵, 스마트 감지·분석 솔루션, 싱가포르 정부가 특정 산업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스타트업에게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을 공모하는 프로그램인 기술 챌린지 운영
- **교육 혁신**
VR·시뮬레이션·모바일 앱 기반 학습, 팀 기반 안전 학습 플랫폼 개발

Workplace Safety and Health Council
@ShineAtWork · 구독자 3.34만명 · 동영상 599개
Visit th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Council website at <http://www.wshc.sg> ...더보기
wshc.sg 외 링크 3개
구독

홈 동영상 Shorts 팟캐스트 재생목록 🔍

최신순 인기순 날짜순

Sharing by our Next Generation of Safety Champions : 조회수 205회 · 1개월 전 4:07

Stay Safe in the Kitchen: WSH Tips for Workers in F&B Services Industry (Chinese) : 조회수 1.2천회 · 1개월 전 5:33

Stay Safe in the Kitchen: WSH Tips for Workers in F&B Services Industry (Malay) : 조회수 277회 · 1개월 전 6:38

Stay Safe in the Kitchen: WSH Tips for Workers in F&B Services Industry (English) : 조회수 2.6천회 · 1개월 전 5:59

이미지 출처 : 유튜브 Workplace Safety and Health Council

PROTECTING PEOPLE AND PLACES



또 다른 선진 사례 : 영국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

영국의 HSE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가장 위험한 곳부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험한 곳은 더 꼼꼼하게

위험의 크기에 비례하여 관리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현장이나 화학 공장 같은 곳에는 사전에 정기적인 현장 방문과 불시 검문을 진행하며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곳에서 안전모 미착용 같은 심각한 위반이 발견되면 *'위반 통지서' 또는 *'작업 중지 통지서'를 발부하고, 중대한 사고 발생 시에는 철저한 조사 후 '법적 기소'를 통해 엄중히 처벌합니다.

반면, 사고 위험이 낮은 사무실 같은 곳은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주로 사고 보고나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러한 경우, 곧바로 현장 방문하기보다는 전화나 서면을 통해 개선을 권고하고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공식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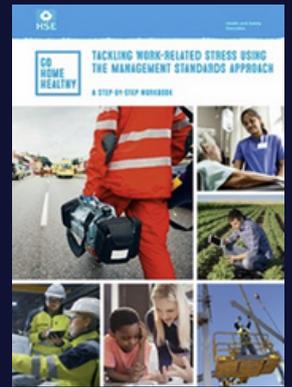
cf> 위반 통지서, 작업 중지 통지서, 법적 기소

영국의 근간 법률 직장 내 보건 및 안전법 1974(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HSWA)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적 집행 조치 이는 HSE 감독관에게 법규 위반의 경중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1. 법규 위반은 있지만 즉각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HSWA 제21조에 의거하여 '위반 통지서'를 발부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2. 심각한 부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작업 중지 통지서'를 발부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할 때까지 작업을 즉시 중단시킵니다.
3. 중대한 사고나 고의적인 법규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HSWA의 포괄적인 법적 권한에 근거하여 '법적 기소'를 진행함으로써 무제한의 벌금이나 징역형 등 가장 엄격한 처벌을 통해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움직인다

모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돕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학적 연구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HSE는 영국의 노동력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표준(Management Standards)'이라는 작업 관련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작업 관련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인 6가지 영역(요구, 통제, 지원, 관계, 역할, 변화)을 정의하고, 사업장이 스스로 스트레스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또한 HSE는 연구 보고서 시리즈를 통해 특정 작업 환경의 위험을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먼지 노출이 근로자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HSE는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RCS 노출 관리 지침(Guidance on managing exposure to RCS)'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은 건설 현장 사업주가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습식 절단 장비 사용, 국소 배기 장치 설치,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착용 등 구체적인 기술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작업 환경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지 분석하고, 그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듭니다.



<관리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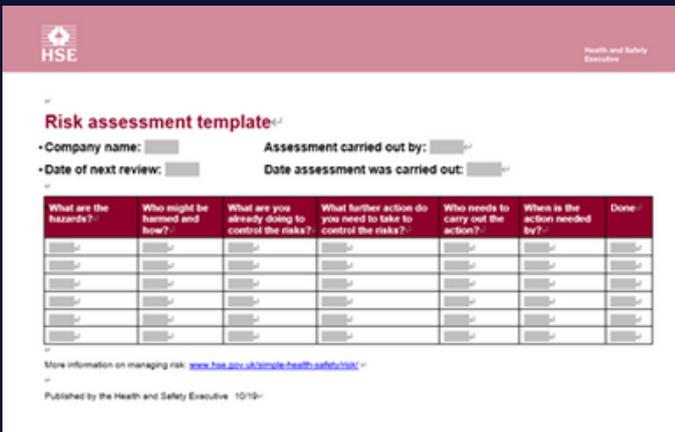
<RCS 노출 관리 지침>

이미지 출처 : HSE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 HSE 홈페이지

<온라인 위험성 평가 도구>

이미지 출처 : HSE 홈페이지



◆ 안전과 혁신을 함께 추구합니다.

HSE는 기업들이 안전 규제를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HSE의 웹사이트에는 온라인 위험성 평가 도구(Risk Assessment Tools)'가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은 이 도구를 통해 직종별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단계별로 파악하고, 그 위험을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HSE는 특정 산업이나 작업 관련 위험에 대한 방대한 지침 자료와 성공 사례를 제공합니다. 기업들은 이 자료를 활용하여 복잡한 안전 규제 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HSE는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혁신적인 기술이 산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HSE는 기업이 제한된 조건(특정 현장, 기간 등)하에 신기술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안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없이 혁신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제33회 국무회의 | 25.07.29.



이미지 출처 : 유튜브 이재명

대한민국, 무엇을 강화해야 하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과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이후, 한국 기업들은 법적 책임 회피라는 큰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국내외 기업들의 부침을 지켜보면서, 위기 속에서도 성장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본질을 파고들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을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 "자율적 위험 책임"을 제안합니다.

이는 싱가포르의 성공 모델에 기반한 실행 가능한 전략입니다.

진단 : 우리 기업의 대응 현황과 문제점

◆ 싱가포르 WSH 2028 전략과 대한민국 안전정책 현황 비교 분석

싱가포르의 'WSH 2028'은 안전을 '로 전환하고, 근로자의 '건강'까지 포괄하며,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유사한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나, 실행 방식과 강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 1. 안전보건 소유권 강화: 경영 책임과 시장 원리의 적용

싱가포르는 'CheckSafe' 포털을 통해 기업의 안전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안전을 기업의 평판 및 이익과 직결시켰으며 보험료 차등화를 통해 안전을 직접적인 비용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실행규범(Code of Practice)을 통해 경영진의 책임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통해 경영진의 책임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의 실행규범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또한 재해 발생률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가감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CheckSafe'와 같이 기업의 안전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원청사가 협력업체 선정 시 직접 활용하도록 강제하는 수준의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합니다.

◇ 2. 작업장 보건에 대한 관심 제고: '안전'에서 '건강'으로의 확장

싱가포르 WSH는 질병이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근로자의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관리까지 안전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뇌심혈관 질환 예방 프로그램 등을 의무화하며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을 통해 사업주가 금연, 운동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와 정책적 방향을 같이하지만, 실제 사업장에서의 체계적인 실행과 효과 검증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 3. 기술 기반 안전보건 증진: 스마트 안전의 활성화

싱가포르는 WSH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 챌린지를 운영하는 등 정부 주도로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 등을 통해 AI기반 CCTV, IoT 센서, 웨어러블 기기 등 첨단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스마트 안전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활용도 제고와 기술 표준화, 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으로 경영진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데는 큰 진전을 이루었으나, 싱가포르처럼 안전 성과를 시장의 평가와 기업 이익에 직접 연동시키는 '비즈니스 언어'로 전환하는 기제는 아직 보완이 필요합니다.

'안전'을 넘어 '건강'으로, '규제'를 넘어 '기술과 시장'으로 나아가는 WSH 2028의 방향성은 대한민국 안전정책이 나아갈 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전략 제언 : 새로운 패러다임 제안 <안전을 위한 모든 활동을 'RISK BASE'로 전환>

지금까지 살펴본 싱가포르 모델의 세가지 핵심 전략은 매우 강력하지만, 이를 한국의 법적, 문화적 토양에 그대로 옮겨 심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의 저변에 깔린 핵심 원칙들을 이해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 LRQA가 제안하는 성공모델



싱가포르 성공요인1 : 안전을 '비즈니스 언어'

◇ **안전보건 수준 진단 (SMAT 진단프로그램)** -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수준을 파악합니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전 분야에 대한 Global 평가 기준에 따라 수준을 진단합니다.
2. 안전보건경영 문서체계, 실행 수준을 진단하여 GAP 분석을 통해 개선 전략을 수립합니다.

◇ **리더십 투어 (Leadership Tour)** - "리더의 현장점검 방법을 코치합니다."

1. 사업장 위험성 평가 기반으로 리더와 구성원과의 대화를 통해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2. 모든 활동은 기록되고, 리더와 구성원이 파악한 위험은 등록되어 추적 관리됩니다.

싱가포르 성공요인2 : '안전'의 범위를 '건강'까지 확장하다

→ 한국의 관점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중심에서 행동안전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

◇ **BBS (Behavior Based Safety)** - "작업자의 행동 관리가 실질적인 사고예방입니다."

1. 일방적 점검에서 진정성을 가진 관찰만이 위험행동을 안전행동으로 변화시킵니다.
2. 관찰된 행동 변화는 조직 및 기업의 긍정적 안전문화를 정착시킵니다.

싱가포르 성공요인3 : 현장 중심 문화와 기술 혁신

◇ **안전인식도 조사 (Perception Survey)** - "안전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변화 Trend"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위험관리 8Aspect'로 정기조사를 수행하고 인식변화를 Catch

◇ **SCL(Safety Culture Ladder)** - "안전문화의 구축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고를 예방"

국제적인(네덜란드 NEN) 공식 평가체계이며, 전세계 약1,500여 기업이 평가 수행

◇ **위험성평가 체계(GRA, JRA-JSA) 업그레이드** - "설계된 DB로 위험성평가 업그레이드"

조직, 작업 현장, 설비, 도구 작업 활동의 위험 DB설계로 AI 적용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LRQA 소개

LRQA는 평가, 어드바이저리, 검사 및 사이버 보안 서비스 분야에서 지난 수십 년간 독보적인 전문 지식과 경험을 쌓은 세계 최고의 글로벌 어슈어런스 파트너입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솔루션 기반 파트너십은 고객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장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지원합니다. 현재 LRQA는 각종 수상 경력에 빛나는 컴플라이언스, 공급망, 사이버 보안, ESG 분야 전문가 등 5,000여명의 임직원과 함께 150여 개국, 약 61,000여 곳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리스크 예측, 완화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항상 회사 임직원, 고객, 사회 및 환경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E : so-hyun.park@lrqa.com
M : 010-9625-0828

LRQA
2F T Tower
30 Sowol-ro 2-gil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04637

Care is taken to ensure that all information provided is accurate and up to date; however, LRQA accepts no responsibility for inaccuracies in or changes to information.